

더 큰 혁신도시...나주, 공공기관 '추가 유치 추진단' 발족

강영구 부시장 단장...유치·지원, 부지확보 등 4개팀 구성 기존 16개 이전기관 연관성 고려 유치 가능 리스트 마련

나주시가 국가균형발전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 추가 이전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로 본격 전환했다.

나주시는 내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에 대비하고, 더 큰 혁신도시 완성을 위해 강영구 부시장을 단장으로 내부 '유치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14일 밝혔다.

유치 추진단은 가장 먼저 기존 나주혁신도시 이전 16개 공공기관과의 연관성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해 33개 기관을 최우선 타깃으로 선정, 유치 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달 운영대 시장



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우동기 위원장이 공개 발언을 통해 밝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내년 말부터 가시화 될 것이다"는 전망에 따라 발 빠르게 '유치 추진단'

을 꾸리게 됐다.

추진단은 강 부시장 중심의 총괄 운영반과 실무 추진반 등 2개 반, 4개 팀, 17명의 단원으로 꾸려졌다.

4개 팀은 '기획·홍보', '유치·지

원', '정주여건 개선', '부지확보' 등 선제적인 유치 전략을 추진한다.

특히 부지확보에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해 '활용가능한 시유지 데이터화', '혁신도시 미입주 건물·폐교 등 유휴 공간 발굴',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에너지 국가산단 등 연계 부지 활용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한다.

추진단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부 정책 동향 등을 공유하게 된다.

강영구 나주시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최근 발언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보다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해 추진단을 꾸렸다"며 "산학연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등 나주만의 강점을 살린 유치 전략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성준 기자

합평, 농촌진흥사업 평가 '최우수상'

합평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중심 기술지도가 빛을 발했다.

합평군은 "전남도 주관 '2022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및 상사업비 1,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도 농촌진흥사업에 대해 방제실적, 종합만족도, 청년농업인 육성 등 15개 세부 지표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발하는 제도이다.

군은 올 한 해 ▲영농철 영농현장 합평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중심 기술지도가 빛을 발했다.

영농 지원 ▲샤인머스켓 수출지원 ▲지역맞춤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등 다양한 농촌 진흥 사업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 모두가 매일같이 농업 현장을 찾아 농업인들과 적극 소통·협력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평군은 '공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20억)'과 '발농업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32억)' 공모에 선정돼 내년도도 농촌진흥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합평=김용희 기자

장성, 벼 정부보급종 구입비 지원

포대 당 1만원... 벼농사 경영비 절감 기대

장성군이 내년도 벼 정부보급종 구입비를 포대 당 1만 원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2022년산 정부보급종을 공급받는 지역 농업인이다.

정부보급종은 생산 단계별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거친 우량종자로, 순도가 높고 품종 고유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단, 공급가격이 일반종자보다 비싸 농가 부담이 크다. 종자 구입비보다 정부 구매가가 낮아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장성군은 정부보급종 구입 시 포대 당 1만 원을 지원해 농업인

의 부담을 낮추고, 우량종자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대비 기존 2021년산 정부보급종 가격은 포당 4만 9020원이었으나 농가 실구매가는 3만 9020원으로, 1만 원 차감 혜택을 봤다.

올해 지원 품종은 내년도 벼 정부보급종인 새청무, 동진찰, 조명1호, 신동진, 백옥찰이다. 지원방식은 간단하다. 벼 정부보급종 신청 농가가 지역농협에서 종자를 구입하면서 포대 당 1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고 수령하면 된다.

장성=심재식 기자

영광, 제2기분 자동차세 18억8000만원 부과

영광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1만1536건에 1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사 어플리케이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자료(www.giro.or.kr), ARS(☎080-350-3651)등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 말일에 자동으로 인출되므로 반드시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제2기분부터 돌보기고지서를 제작하여 발송하고 있다. 돌보기고지서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를 큰 글씨로 고지서 중앙에 배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지방세 납세고지서로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 납세자를 위해 제작했다.

또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 의무표기가 법제화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 바코드를 출력하여 시각장애인의 납세 편의를 제고했다. 시각장애인의 음성변환 바코드는 '보이스아이'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광=서종민 기자

화순 백신산업특구, 우수 지역특구 선정 '국무총리상' 수상

전주기 인프라 구축 유일... K-글로벌 백신 거점 도약

화순 백신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수 지역특구'에 선정됐다.

화순군은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2년 우수 지역특구 시상식'에서 우수 지역특구로 선정돼 국무총리상과 함께 1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84개 지역특구를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와 특구 운영 추진전략, 규제 특례 활용 실적, 기업 유치·고용 창출, 특허 출원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 추진과 규제특례 6건을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동물세포 등 백신 생산시설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백신·바이오 분야의 대규모 국제기관과 사업을 유치하고 신규 국비 사업을 발굴해 산업 생태계 기반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m-RNA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430억)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활용 백신산업화 기업지원(209억) ▲백신기술 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구축(40억) ▲국가 백신안전기술지원센

터 기능 확대(441억) ▲치료백신 및 세포티로제 상용화 연계 고도화(88억) 등이다.

화순군은 10년간 600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도 나섰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화순백신산업특구는 의약품 연구개발, 비임상, 임상, 의약품 생산, 창업, 인중에 이르는 백신 관련 전주기 인프라가 구축된 전국 유일 지역이다"며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더욱 탄탄히 다지고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명실상부한 K-글로벌 백신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주용현 기자

담양,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 가공시설 공모 선정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 시설 완료 시 연간 24만 톤 공급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3년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억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이용 증진과 공급 활성화를 통한 조사료 자급 기반 확대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공급능력 등 타당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됐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담양축협은 오는 2023년도에 사업비 30억원(국비 9억, 지방비 9억, 자부담 12억)을 투입해 TMR 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2023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이다.

시설이 완료되면 일 65톤, 연간 2.4만톤의 TMR(Total Mixed Ration)사료를 축산농가에게 생산원가로 공급

할 수 있다.

공급이 확대되면 높은 등급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 경영비 절감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최근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내 사료 자급화 확대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승채 기자

장흥 물과과학관 '수열 홍보관'으로 새단장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일환... 내년 3월 첫선

장흥군 탐진강변에 위치한 정남진 물과과학관이 수열홍보관으로 새단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남진 물 과학관 리모델링 및 수열홍보관 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장흥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새로원진 물 과학관에서는 물과 수열에너지라는 다소 난해할 수 있는 분야를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로 풀어낼 방침이다.

물 교육 콘텐츠 제공을 하기 위해 1층 홍보관·체험관실, 터치폴 및 수족관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2층은 물 과학체험관, 4D영상관, 수족관으로 재구성하고, 마지막 3층은 실감체험관(3개관)을 만들 계획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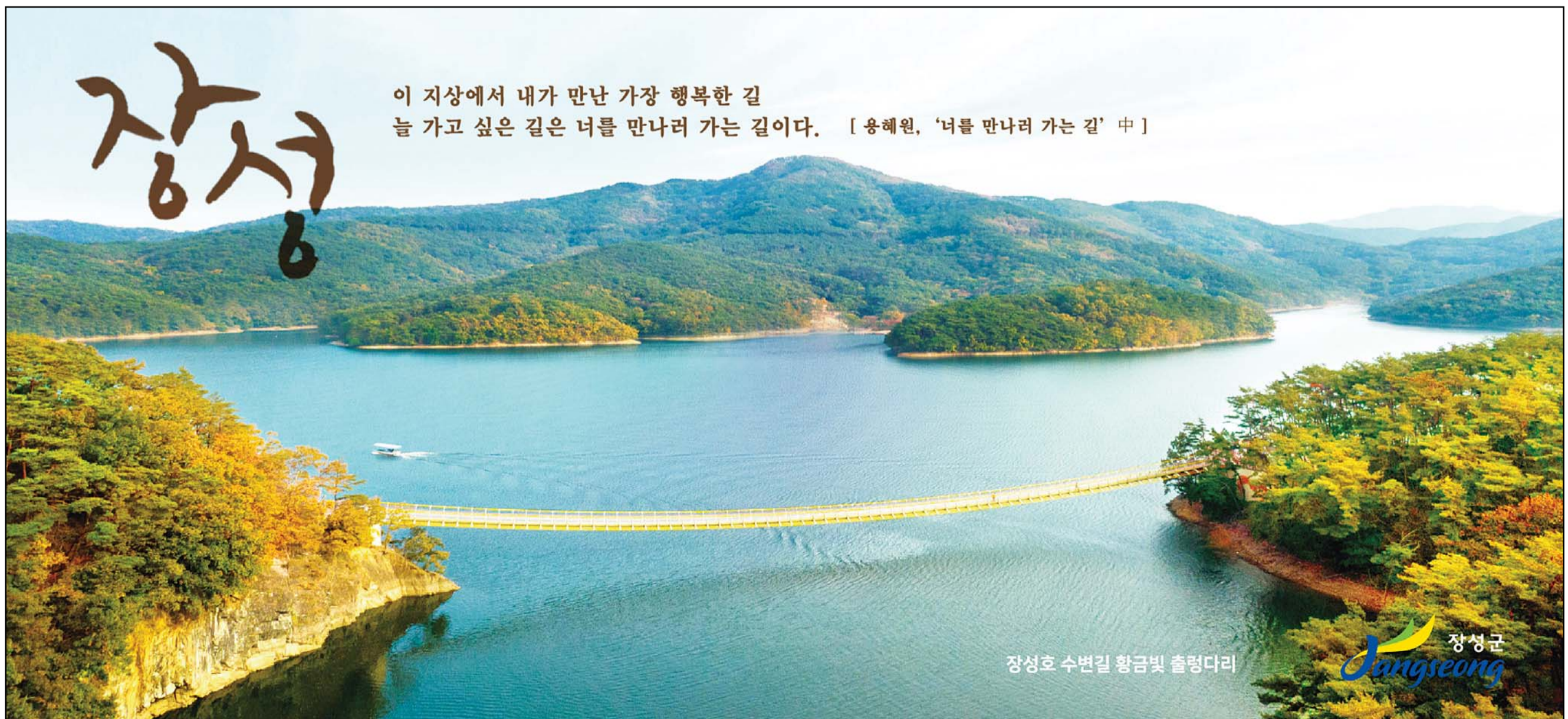
군은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열에너지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노력할 방침이다.

새단장을 마친 물 과학관은 2023년 3월경 선보일 예정이다.

장흥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물 과학관은 최근 5년간 관람객 총 6만 6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의견을 나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현장학습의 공간을 만들 것"이라며,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놀이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이 지상에서 내가 만난 가장 행복한 길
늘 가고 싶은 길은 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용혜원, '너를 만나러 가는 길' 中]

장성호 수변길 황금빛 출렁다리

